

치위생(학)과 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에 대한 융합연구

박신영

송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겸임교수

A Convergence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s and Service requirements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Dementia

Sin-Young Park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ong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에 대한 융합연구이다. 일 지역 치위생(학)과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매에 대한 태도는 서비스 요구($r=.59, p=.000$)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요인은 태도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치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내용과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 내용 및 과정이 필요하다.

주제어 : 서비스 요구, 지식, 치매, 치위생, 태도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upporting about knowledge, attitudes and service requirements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dementia. According to a survey of 200 students in some local dental hygiene,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attitude and service requirements($r=.59 p=.000$) about dementia. The factors of convergence on service requirements for dementia have been shown to be significant in attitude. Therefore, training content and courses are needed to instill diverse service content and positive attitude about dementia for dental hygiene students to provide.

Key Words : Service requirements, Knowledge, Dementia, Dental hygiene, Attitudes

1. 서론

치매는 인지기능장애로 판단력이나 기억력, 감정, 계산능력 등의 일부를 상실하여 일상 및 사회생활 등에 장애를 주는 질환으로[1] 특히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치매 노인이 20년마다 2배씩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2] 이제는 치매문제가 국가책임제라는 말이 생길만큼 국가에서도 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7년 국가에서는 전국에 치매센터 확대

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보완 등을 발표하고, 치매노인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다[3,4].

이러한 치매를 갖는 노인의 경우 전신건강 뿐만 아니라 구강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5]. 구강의 기능 중 저작능력은 뇌에 혈류공급을 해주어 학습과 기억에 관해 영향을 주는[6] 치매노인 경우 저작능력이 일반 노인보다 낮고[7,8], 치아나 잇몸 상태, 영구치우식염물 등 전반적인 구강상태가 치매노인이 일반 노인보다 구강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9] 치매노인의 구강건강을

*Corresponding Author : Sin-Young Park(sy0914p@hanmail.net)

Received March 18, 2019

Accepted June 20, 2019

Revised May 30, 2019

Published June 28, 2019

위한 대책 및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일본의 경우 치매노인을 포함한 모든 노인들에게 전신 건강과 함께 구강건강을 위해 치과위생사를 의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등과 함께 Team approach를 시행하며 구강전문인력을 중요시 하고 있다[10].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과 관련된 복지센터나 요양기관에 치과위생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구강관리 할 수 있는 인력 및 프로그램이 없어[11] 치매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구강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이를 양성하는 대학교육의 중요함이 필요하다. 치매와 간호학 교육 연구를 보면, 학교에서부터 치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건 치매환자의 치료 기간과 삶의 질,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치매에 대한 지식은 치매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치매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태도 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임해야 치매환자 간호에 있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3]. 또한 치매노인들 같은 경우 일반 노인과 다르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태에 따른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치매노인센터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서비스를 증가시키고, 치매노인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또한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12]. 그러므로 치매노인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해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치매와 치위생학의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치매노인들에게 구강건강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더 미흡하다. 또한 치매에 대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지식수준의 연구를 보면 타 보건계열 학생들의 비해 관심도가 낮고, 지식수준도 낮게 나타나[10]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치매에 대한 교육이 더욱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치과위생사로서 치매노인과 그 가족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되기 위해 치위생(학)과 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주 전남지역에 소재한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에게 직접 서명 날인 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대상자 표본수는 G*Power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시 유의수준 $\alpha=0.05$, 효과의 크기는 중간정도=0.25, power=0.95로 산출한 결과 100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2.2 연구방법

2.2.1 일반적 특성

학년, 전공만족도, 치매에 대한 관심도, 치매 교육경험 여부, 치매노인 동거 경험 여부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2 치매에 대한 지식

양경미[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치매 지식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정답은 2점, 오답은 1점으로 최저 15점, 최고 30점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7$ 이다.

2.2.3 치매에 대한 태도

조현오[15]가 개발한 설문지 총 10문항으로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1,2,3,4,5문항은 역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조현오[15]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6$ 이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5$ 이다.

2.2.4 치매 관련된 서비스 요구도

김숙희[16]가 개발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총 15문항으로 5점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도구는 교육 및 정보제공, 가족관련, 재가복지, 전문인력등과 관련된 서비스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숙희[16]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이고, 본 연구는 Cronbach's $\alpha = .94$ 이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서비스 요구도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변수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치매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는 $p < 0.05$ 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치매에 대한 지식

연구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Table 1과 같다. 총 30점 만점에 22.4±6.13점으로 나타났고, 정답률이 높은 영역은 '규칙적인 운동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고, 가장 낮은 영역은 치매에 대한 치료 및 관리영역인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로 나타났다.

3.2 치매에 대한 태도 및 서비스 요구도

치매에 대한 태도 및 서비스 요구도는 Table 2와 같다. 치매에 대한 태도는 총 50점 만점에 37.3±4.41점으로 세부분항 분석결과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이 더 생겼으면 한다' 가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치매에 걸린다면 그 사실을 숨기고 싶다'가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치매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는 총 65점 만점으로 61.0±6.98점으로 나타났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서비스 요구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서비스 요구도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 지식은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도와 서비스 요구도는 학년, 전공만족도, 치매에 대한 관심도, 치매교육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2. Scores of attitude and service requirements toward dementia

Variables	M±SD
Attitude	37.3±4.41
Service requirements	61.0±6.98

3.4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간의 상관관계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치매에 대한 태도가 서비스 요구($r = .59, p = .000$)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dementia knowledge, attitude, service requirements

Variables		Knowledge	Attitude	Service requirements
knowledge	r (p)	1.00		
Attitude	r (p)	.10 (.118)	1.00	
Service requirements	r (p)	.15 (.102)	.59** (.000)	1.00

Table 1. Frequency of correct and incorrect answers on dementia knowledge

Knowledge	Correct	Incorrect
	N(%)	N(%)
Everyone gets dementia when they get older.	73(36.5)	127(63.5)
Dementia is a disease of the brain.	109(54.5)	91(45.5)
Dementia is related to genetic factors.	72(36.0)	128(64.0)
men are more prone to dementia than women.	104(52.0)	96(48.0)
Dementia patients remember the latest words better than the old words	109(54.5)	91(45.5)
If you have dementia, you have not sense of time, wander from place and don't recognize people.	115(57.5)	85(42.5)
If you start treatment early, you can slow down your dementia.	107(53.5)	93(46.5)
Dementia is cured by drugs.	107(53.5)	93(46.5)
Dementia is incurable.	58(29.0)	142(71.0)
Dementia is associated with drinking.	94(47.0)	106(53.0)
Regular exercise helps prevent dementia.	116(58.0)	84(42.0)
It is helpful to change the environment frequently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89(44.5)	111(55.5)
Dementia can change personality	114(57.0)	86(43.0)
Dementia is accompanied by depression	101(50.5)	99(49.5)
Dementia is diagnosed by blood test.	106(53.0)	94(47.0)
Total score(M±SD)	22.4±6.13	

Table 3. Knowledge, attitude and service requirements about dementia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Knowledge			Attitude			Service requirements		
			M±SD	t/F	p	M±SD	t/F	p	M±SD	t/F	p
Grade	1	39(19.5)	23.1±5.92 ^{ab}	4.25	.006*	36.0±4.40 ^a	5.08	.002*	59.8±7.39 ^a	3.03	.03*
	2	54(27.0)	22.2±6.28 ^{ab}			37.4±3.76 ^{ab}			60.2±7.54 ^{ab}		
	3	38(19.0)	25.0±5.33 ^b			39.6±3.92 ^b			63.9±6.42 ^b		
	4	69(34.5)	20.7±6.12 ^a			36.9±4.75 ^a			60.7±6.18 ^{ab}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108(54.0)	23.0±6.04	1.26	.287	38.7±4.27 ^b	14.22	.000**	63.1±6.46 ^b	12.98	.000**
	Normal	81(40.5)	21.7±6.22			36.0±3.95 ^{ab}			58.2±5.85 ^{ab}		
	Dissatisfaction	11(5.5)	21.4±6.23			33.7±4.20 ^a			60.3±11.42 ^a		
Interest in dementia	High	47(23.5)	23.4±6.00	1.20	.31	40.4±3.71 ^c	26.9	.000**	63.2±7.10 ^b	7.89	.01*
	Normal	114(57.0)	22.3±6.20			37.1±4.13 ^b			61.3±6.23 ^b		
	Low	39(19.5)	21.4±6.11			34.2±3.54 ^a			57.5±7.63 ^a		
Education experience of dementia	No	157(78.5)	22.3±6.17	1.48	.14	37.3±4.38	4.48	.000**	60.9±7.09	5.46	.000**
	Yes	43(21.5)	22.6±6.05			37.6±4.55			61.4±6.50		
Experience of cohabitation with dementia elderly	No	182(91.0)	22.4±6.13	-.50	.62	37.3±4.33	.23	.82	61.1±9.21	.04	.97
	Yes	18(9.0)	21.7±6.29			37.6±5.30			61.0±6.73		

Table 5. The convergence effects of service requirements about dementia

Variables	β	S.E	EXP (β)	p
constant	28.6	5.47		.000
Grade	.27	.38	.04	.48
Satisfaction of major	-1.13	.73	-.10	.12
Interest in dementia	.21	.74	.02	.77
Education experience of dementia	-.42	.99	-.03	.67
Experience of cohabitation with dementia elderly	-.37	1.44	-.02	.80
knowledge	.04	.07	.03	.59
Attitude	.88	.11	.56	.00

F=15.40, p<0.001, R2=.360

3.5 치매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요인

치매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요인은 Table 5와 같다. 치매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과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를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치매에 대한 태도(p<0.001)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4. 고찰 및 결론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치매노인들이 증가되면서 그에 따라 구강건강 전문 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어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인 예비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서비스 요구도를 연구하였다.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치매에 대한 지식은 22.4±6.13점으로 간호학과 학생과 사회복지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7]에서보다는 낮은 지식 수준을 나타냈고, 일반적 특성에서 치매관련 교육 경험이 78.5% 로 없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직 치위생(학)과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뤄지지 못함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식수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현재 치위생(학)과 학교교육에서는 치매노인에 관한 교육 과정이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고, 교육 프로그램 및 지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10].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높은 지식수준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10] 앞으로 임상으로 나아가서 치매환자를 교육할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습득이 이뤄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 따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지식은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학년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권과 이의 연구[12]에서는 지식이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이며 서비스 요구도가 높다는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지식은 태도 및 서비스 요구도와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 치위생(학)과 학생들만을 위한 지식측정도구가 개발되지 않아 추후 정확한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매에 대한 태도는 본 연구에서 37.3 ± 4.41 점으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2]에서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태도는 저학년일수록 낮았다. 이는 치매에 대한 태도는 지식수준과 많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18] 일부 학교 내 교육과정에서 대부분 저학년때보다는 고학년때 노인관련 수업과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매에 대한 교육 경험 이 있는 경우 치매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노인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변화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17]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태도는 경험이나 지식 습득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주장한 연구도 있어[18,19]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태도를 높이기 위해 이론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치매노인 실습 교육과정도 함께 이뤄져 추후 임상에서의 치매환자를 볼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치매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는 61.0 ± 6.98 점으로 높은편으로 이는 김 등의 연구[18]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치매에 대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더욱 많은 서비스 개발과 확대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치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서비스 요구도와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고 치매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으로 치매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매환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치매노인에 대한 정책 및 복지 서비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 관한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내용과 치매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 줄 수 있는 융복합적 교육 내용 및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결과로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점에서 의미가 있고, 향후 구강전문가인 치과위생사가 치매노인과 그 가족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추후 좀 더 많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학교 내 교육과정 및 직무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치매에 대한 태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과 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REFERENCE

- [1] J. E. Lee & Y. J. Jang. (2016). A comparative study of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attitudes towards dementia. *Health Social Welfare Rev*, 36(1), 233-260. DOI : 10.15709/hswr.2016.36.1.233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Title of Website*. 2012 National survey of dementia elderly [Online]. <http://www.mohw.go.kr>
-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Title of Website*. Survey on the prevalence of dementia [Online]. <http://stat.mw.go.kr>
-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Title of Website*. Management of various risk factors such as alcohol drinking causing dementia. [Online]. <http://stat.mw.go.kr>
- [5] S. A. Clouston et al. (2013).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function and cognition in longitudinal aging cohorts. *Am J Epidemiol*, 35, 33-50.
- [6] B. H. Lee, J. S. Park & N. R. Kim. (2011). The effect of physical activity program on cognitive function, physical performance, gait,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with dementia. *J Spec Edu Rehabil Sci*, 50, 307-328.
- [7] H. Miura, K. Yamasaki, M. Kariyasu, K. Miura & Y. Sumi. (2003).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function and mastication in elderly females. *J Oral Rehabil*, 30, 808-811.
- [8] B. Wu, B. L. Plassman, B. J. Crout & J. Liang. (2008). Cognitive function and oral health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J Gerontol A Biol Sci Med Sci*, 63, 495-500.
- [9] M. Jin, D. K. Kim & B. J. Lee. (2008). Oral health status of elderly long-term hospitalized patients with and without dementia in Jeollanam do, South Korea. *J Korean Acad Dent Health*, 32(3), 299-308.
- [10] E. S. Jung & K. H. Lee. (2018). Knowledge, attitudes, and the educational needs on dementia for the stude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J Korean Soc Dent Hyg*, 18(4), 571-584. DOI : 10.13065/jksdh.20180045
- [11] Y. K. Choi, B. M. Shin, J. H. Son & D. Y. Park. (2016). Effectiveness and learning experience of dental communication course training in dental hygiene schools. *J Korean Dent Hyg Sci*, 16(2), 134-141. DOI : 10.17135/jdhs.2016.16.02.134
- [12] M. S. Kwon & J. H. Lee. (2017). Analysis of Knowledge,

- Attitude and Service Requirements about Dementia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9), 177-185.
DOI : 10.5762/KAIS.2017.18.9.177
- [13] Y. Kang, W. Moyle & L. Venturato. (2011). Korean nurses' attitudes towards older people with dementia in acute care sett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Older People Nursing*, 6(2), 143-152.
DOI : 10.1111/j.1748-3743.2010.00254.x
- [14] K. M. Yang. (2011). *Effects of educational program about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dementia for trainees on care helper program*.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15] H. O. Cho. (1999). *A studon public Knowledge and Attitudes to Dementia*.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16] S. H. Ki. (2013). *Knowledge, attitude and recognized service requirements for dementia concerning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and social welfare*. Master's thesis. woosuk University, Wanju.
- [17] S. H. Kim, O. H. Ahn & D. H. Park. (2015). Nursing Student and Social Welfar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Dementia.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6(3), 111-117.
DOI : 10.15207/JKCS.2015.6.3.111
- [18] S. J. Park, K. S. Park & Y. J. Kim. (2015). The effects of geriatric nursing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attitude, perception toward dementia and dementia policy. *J Knowledge Info System*, 16(7), 4467-477.
DOI : 10.5762/KAIS.2015.16.7.4467
- [19] M. Broughton et al. (2011). Evaluation of a caregiver education program to support memory and communication in dementia: A controlled pretest -posttest study with nursing home staff. *J Nurs Stud*, 48(11), 1436-1444.
DOI : 10.1016/j.ijnurstu.2011.48.11.1436

박 신 영(Sin-Young Park)

【중요인】



- 2005년 2월 : 원광대학교 보건학과
구강보건전공 (보건학 석사)
- 2017년 8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현재 : 송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보건학, 치위생학
- E-Mail : sy0914p@hanmail.net